

WINTER

2019

하늘꿈학교 겨울소식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씨앗은 작고 보잘 것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겨 썩으면 많은 열매로 맺어집니다.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씨앗의 존재이유인 생명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Not I, But Christ”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19장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절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주님께 심겨지는 첫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며,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소유합니다. 내가 씨앗이라 한다면, 차고 어두운 땅에 심겨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을 소유한 자는 소망의 인내로 그 순간을 견뎌냅니다. 이 과정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넘게 복음을 들을 수도, 들은 적도 없는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통일을 준비하십시오.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독서왕 대회

한 학기에 한번 하늘꿈학교는 독서왕 대회를 엽니다. 독서왕 대회에서 학생들은 읽은 책에 대한 느낀 점이나 관련 내용을 전교생 앞에서 발표합니다. 북한에서는 종이가 귀하고 사상 통제를 해야 하기에 책을 마음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학년들도 다 읽었을 위인전이나 고전을 탈북청소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꿈학교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깨우치도록 독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이를 위해 독서왕 대회를 열어 책을 많이 읽고 발표를 잘한 학생을 수상합니다. 이번 2019년 2학기 독서왕 대회에서 고 2반 장예린 학생과 중 3반 박영명 학생이 수상하여 발표 내용을 소개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하늘꿈학교 고2 장예린

| 읽게 된 동기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세계적인 위인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 내용 요약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빛나는 생애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치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철전팔기의 무한한 도전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좋았던 구절

▶ “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십시오. 저는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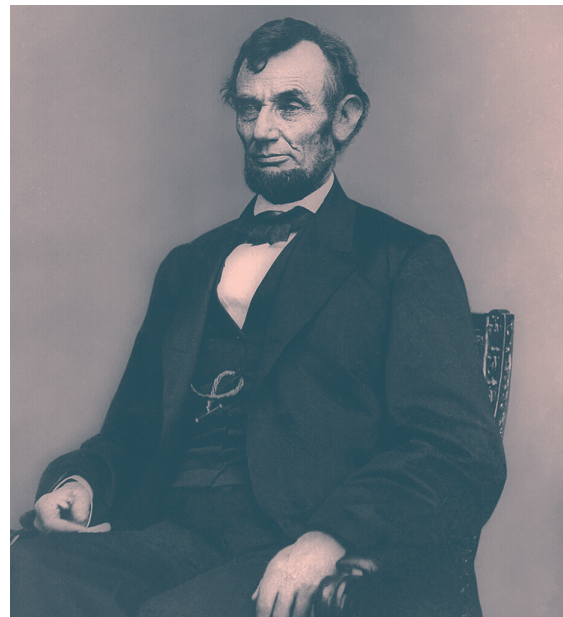
▶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 새롭게 알게 된 점

링컨은 미국의 새 역사창조의 개척자였지만,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을 견디며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성경을 늘 읽으며 목상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 내 삶에 적용할 점

수많은 실패에도 다시 도전했던 무한한 도전정신과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고 겸손했던 링컨의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Abraham
Lincoln

1809.2.12 ~ 1865.4.15



발표 중인 장예린 학생

탈무드

하늘꿈학교 중3 박영명

| 내용 요약

랍비(율법 학자)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예화로 말한 책이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 중에서도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 좋았던 구절

▶ 인간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세상에 남긴다. 그것은 바로 가족, 재산, 선행이다. 이 중에서 선행 이외에는 대단한 것이 없다.

▶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지식은 빼앗기는 일 없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 새롭게 알게 된 점

'배움'이라는 것은 신(GOD)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나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됨 →더 좋은 미래로 다가가는 길은 다름 아닌 '배움'

'배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기 됨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공부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식은 한번 배우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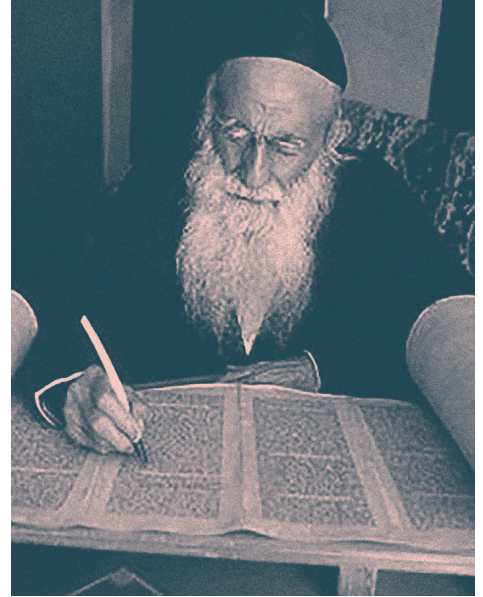
| 내 삶에 적용할 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오늘의 배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발표 중인 박영명 학생



Talmud

하늘꿈학교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1부



“세계관(世界觀, worldview)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진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입니다.”(Walter Wink, 1935-2012)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하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사명선언문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정형 기숙사를 비롯해 교과 외 활동, 체계적인 신앙 훈련, 채플과 종교 수업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9년 2학기부터는 정규 시간표 내에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개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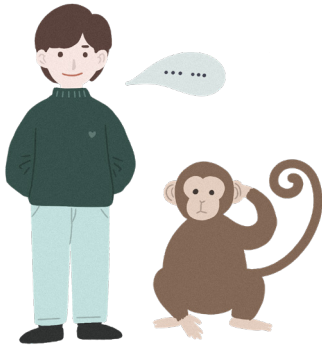
교육과정

1교시	OT,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윤리	
2교시	현대 이슈	창조와 진화
3교시		동성애, 이단
4교시	발표수업 1	
5교시	생활태도	이성교제와 가정, 성(性)
6교시		재정관리
7교시	발표수업 2	
8교시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건국, 정치, 북한인권
9교시		한국교회의 역사와 선교사
10교시	발표수업 3	
11교시	적용	부르심과 사명 (강사:교감선생님)
12교시		하늘꿈학교 역사와 비전 (강사:교장선생님)
13교시	마무리	

다음 소식지에서 부르심과 사명 / 하늘꿈학교 역사와 비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요 내용

1교시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신이 창조? 아니면 원숭이가 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과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어떤 사회를 지지하세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그려야 하죠?

기독교인들은 왜 먼 나라로 **선교**를 가지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2교시 창조와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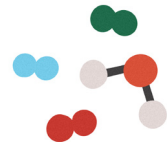
빅뱅 우주론

우주에 시작이 있다.
빅뱅으로 시간과 공간,
물질이 만들어졌다.
물질주의:
우주는 무(無)로부터
저절로 유(有)가 생겨났다.
물리학의 보존 법칙에 위배



자연발생설

생물이 흙, 공기 등에서
저절로 생긴다.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긴다.



화학적 진화설

원시 지구에 있던
간단한 분자들로부터
생명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분자들이 생성되었다.
열역학 제 2법칙에 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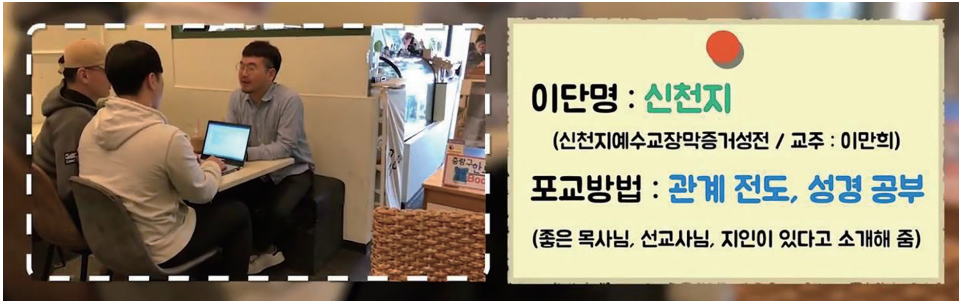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NO (계시의 하나님)

**BUT 자연 만물에는 창조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3교시 '이단' (이단: 다를 이(異)+끝 단(端) = 끝이 다르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이단의 특징

- 사람을 신격화 합니다.
-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성서적인 주장을 합니다.
-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정한 종말 시기를 주장합니다.
-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단의 예방과 대처

- 말씀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단을 예방합니다.
- 목회자가 모르는 외부에서의 성경공부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식 이상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모습에 유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단에 빠졌다고 의심 되었을 때 목회자나 믿을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성교제와 가정, 성(性) 수업 전경



대한민국의 건국, 정치, 북한인권 수업 전경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꿈학교 11회 졸업생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김혜정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학교 11회 졸업생 김혜정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탈북을 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일찍 탈북을 하셨고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오래 전부터 탈북을 권유하셨지만,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꿈학교 첫인상은 어땠나요?

하늘꿈학교 첫인상은 매우 가난한 학교였습니다. 제 상상 속의 남한 학교는 넓은 운동장에 교실, 강당도 있고 그래야 했는데 하늘꿈학교는 허름한 상가 2층에 도저히 학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 여건보다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점 때문에 하늘꿈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기숙사 살았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종종 기숙사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함께 살던 친구가 생일 이면 생일 파티도 하고, 저녁에 식탁에 둘러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눴던 것들이 그리롭니다. 우리는 고향이 같고 겪었던 일들이 비슷하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함께 하는 일은 뭐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씩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뭐든 다 불안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때 기숙사 식구들끼리 기도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4 기숙사에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모든 것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투리도 심해서 남한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렸고,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야 하니 그저 막막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늘꿈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한동대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늘꿈학교에 한동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았고 선생님들이 다녔던 학교니까 좋으리라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저를 한동대학교로 인도해주신 선생님께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2014 교장선생님과

영국에 잠시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저는 제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독의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진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 학교 선배로부터 영국의 기독교 봉사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또다시 적응해야 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웠지만, 조금 해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하나님을 만난 후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본 것 같아요. 몇 달 지나니까 안 들리던 영어가 조금씩 들리고 말도 하게 되면서 적응이 되었고, 그 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아가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떠난 해외 봉사 활동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저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고, 많이 배웠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드림보다 그분의 채움이 훨씬 컸죠.



2018 영국에서

혜정에게 하늘꿈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서 저의 고향이에요. 한국에서의 첫 연고지이기에 하늘꿈학교에서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떠올리면 마음속이 따뜻한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아마 하늘꿈학교를 몰랐다면 저는 한국에서 과연 잘 적응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못 만났고요.



2014 시상식

마지막으로 혜정의 비전과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제 전공이 생명과학부입니다. 과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꿈학교에 다닐 때 전 많이 불안해 했고 두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로운 세상으로 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자신을 인정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다 보니 주님 주시는 비전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오늘의 불안함으로 내일의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 수학여행



2014 졸업여행

나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 것이니 내 삶에서 1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떠난 해외 봉사 활동에서 김혜정 졸업생은 하나님의 더 많은 채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 다양한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 혜정은 통일이 되면 자신의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젠가 과학선생님이 되어 북한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혜정이 있어 든든합니다. 🌈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하늘꿈학교 2019년 영어통일캠프(EUC) 방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성한 권사입니다. 저는 강 권사님의 아내 관난숙입니다.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은 북한에 복음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사역 중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가정형 기숙사를 섬기고 중보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늘꿈학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선한목자교회를 2012년에 왔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교회 옆 건물이 아니라 가락동 상가 건물에 학교가 있었고 주말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저는 그때 북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부부에게 가정형 기숙사를 섬기는 사역을 제안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기도만으로 섬기다가 2014년 처음으로 용기 내어 가락동에 있는 남자 기숙사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석촌동 여자 기숙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꿈학교 기숙사 섬김 사역을 정말 오래 하셨네요.

지금은 북한선교국 사역이 하늘꿈학교 외에도 다양하게 확장 되었지만 처음 북한선교국은 하늘꿈학교 기숙사를 지원하기 위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기 얼마 전에 생겼으니 10년쯤 된 것 같네요. 하늘꿈학교에 10개의 가정형 기숙사가 있는데 한 가정에 한두 명의 동역자가 붙어서 선생님들을 도와 아이들을 챙겨주는 일을 합니다. 기숙사에 사시는 선생님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이 다 큰 아이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정말 선생님들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좀 같이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몇 번 만나서 맛있는 것 같이 먹고 하다 보면 친해져서 미주 알고주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도 해주고, 학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진로 상담도 청해옵니다.

2011 선한복자교회 북한선교국과
함께 남이섬 여행



2018 선한복자교회 북한선교국과
하늘꿈학교 생활교사 교제



2018년 가락동 여자 기숙사



2018년 졸업식 고3반 꽃다발 선물

기숙사 섬김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 실 것 같습니다.

처음 남자 기숙사를 맡았을 때는 선생님 없이 하늘꿈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만 사는 대학생 기숙사였습니다. 한번은 반찬을 해서 찾아갔는데 현관에 신발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거실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청소만 몇 시간을 해주다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없이 아이들만 기숙사에 살게 하니까 술 먹고 싸워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기도 하고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그 기숙사는 얼마 안가 폐쇄 되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도 많이 가져다 주고, 아이들한테 청소 하라는 잔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고 궁금하네요.

그 후에 맡게 된 여자 기숙사에는 선생님도 함께 살고 해서 청소를 안 하거나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싸우기도 하고, 기숙사 규칙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묵묵히 감당해 내시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고 한편으론 선생님들도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숙사 섬김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많이 생겼지만, 전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강성형 국장님 께난숙 권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선생님들이 못하는 엄마, 아빠 역할을 많이 해주셨네요.

언젠가 섬기는 기숙사에 사는 아이에게 감사편지를 받았습니 다. 아이들이 표현은 못했지만, 기숙사에서 필요한 생필품도 챙겨주고, 자기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썼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늘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권사님을 만나면서 처음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나 의심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신기했고 화가 점점 줄고 불안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편지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편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특별히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매일 밤 10시면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문이 핸드폰을 통해 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기도문을 보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강제북송 당한 믿음의 북한 사람들을 위해, 한국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북한 문이 열리면 복음 들고 고향으로 갈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늘꿈학교와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들이 먹고 공부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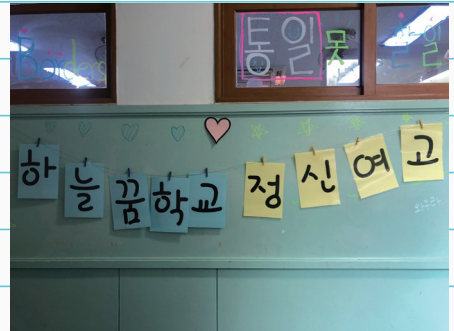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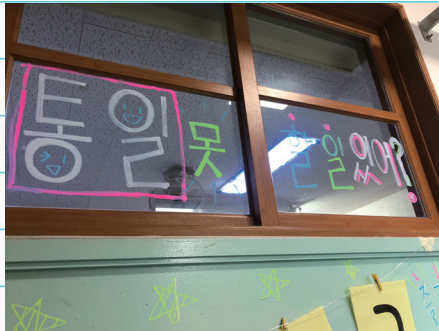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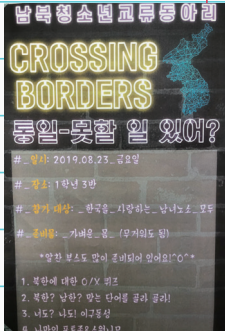
복음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늘꿈학교를 돕는 일도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통일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늘꿈학교는 학교라는 공동체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뜻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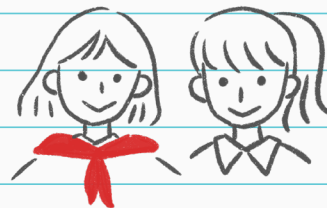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각자 있을 거예요. 낮은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사람도 취업이 힘든데 이들은 더 힘들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남북한 청소년교류 '여랑제'



하늘꿈학교는 오래 전부터 통일은 '제도적 통일'이 아닌 '사람 통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북한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개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와 하는 교류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신여고 축제인 '여랑제'에서는 'Crossing border' 동아리 10명의 학생과 하늘꿈학교 16명의 학생이 북한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정신여고 전교생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축제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에게 북한을 알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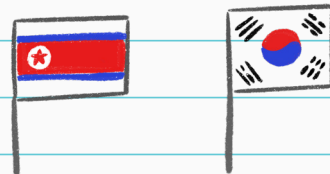
북한에서 살 때에는 언젠가 남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뛰어 노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안했습니다. 탈북을 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류하는 학교 축제에까지 함께 참여하여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스를 진행하며 남한 학생들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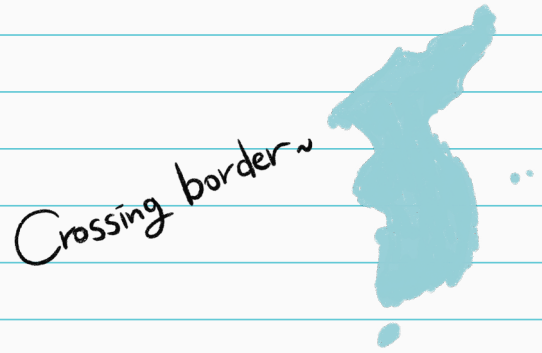
(고등학교 2학년 김**)

저는 부스활동에서 북한 관련 O,X 퀴즈 맞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문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퀴즈를 잘 맞추서 놀랐습니다. 게임을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에 대해 남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랑제를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보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노력의 결과로 기대보다 훨씬 통성한 부스 활동을 이룬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부스를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준 사람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송*)

저는 남한 국기와 북한 국기 들기 게임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괜히 조마조마하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당황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친구들 앞에 서는 것이 괜히 어색하고, 남한 친구들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활기차게 게임을 진행하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도 생겨서 처음보다 잘 하게 되었고 하루 동안 게임을 통해 거의 250명에 가까운 남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교류를 함께하며 남한 친구들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한 친구들도 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

부스 활동이 시작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정말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Crossing border 친구들이 북도에 나가 부스 홍보를 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들어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싶어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제가 맡은 게임인 '북한말, 남한말 연결하기' 게임 규칙을 설명하며 진행했습니다. 가끔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말투가 이상해서 그런 것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를 만나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날 부스에는 정신여고 친구들과 정신여고 축제를 방문한 많은 일반 학교 학생들이 찾아주었습니다. 부스에 찾아온 많은 남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을 알게 되었고, 북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만나보니 만나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편견과 두려움이 해소되었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예랑제의 Crossing border 동아리 부스는 작게나마 사람의 통일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

I. 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국내선교

지난 무더운 여름, 8월 14일(수)-17일(금),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전남 고흥지역으로 국내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선교활동을 통하여 늘 받는 사랑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자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채플 학년별 특송

반별로 월요채플 때마다 학년별 특송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찬양과 율동을 함께 준비하며 서로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중보의 능력을 하늘꿈학교 학생들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하늘꿈학교 전교생은 글쓰기, 카이알파 바이블 특, 스포츠 클럽, 웹툰, 공예, 하늘소리 중 좋아하는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북한에서 못 해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일주일 중 동아리 활동을 하는 수요일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방문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9월 16일(월) 유은혜 부총리께서 임재훈 국회의원,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꿈학교에 방문하여 명절이지만 그리는 고향을 찾지 못한 탈북청소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II.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한국 민속촌 체험학습

하늘꿈학교 전교생은 민속촌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생활 모습도 보고, 웅기도 만들고,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다 보니 하루가 금새 저물었습니다. 뒷간(화장실)을 구경하던 한 학생은 아직 북한에는 저런 화장실이 많으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여러 도구를 선생님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민속촌 체험학습은 단순히 한국의 옛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이 아닌 남과 북의 다른 모습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방훈련&안전교육

위례 119 안전센터에서 오셔서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진지하게 안전교육을 받는 학생들.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III.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집중수업

하늘꿈학교 전교생은 1인 1악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새로운 취미가 생기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 때문에 하늘꿈학교는 오케스트라 수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자 오케스트라 집중수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합주시간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하늘나눔 바자회

지난 학기 하늘꿈학교 학생회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생은 집에서 잘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이때 모인 수익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선한목자교회 봉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기엔 어렵게 사시는 우리의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도와주실 분들이 선한목자교회 봉사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하늘꿈학교 학생들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IV.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정신여자고등학교 교류

남북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인 정신여자고등학교와의 교류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의 축제 때 부스도 만들어 북한을 알리기도 하고 하늘꿈학교 친구들이 정신여자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고향을 소개하기도 하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 진학, 취업 PART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졸업여행

고3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곳 구경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늘 북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졸업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로활동_커스터마이징

진로 활동의 일환으로 티셔츠나 에코백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과학선생님을 위해 아이슈타인 사진을 넣어 에코백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선배에게 듣는 진로 특강

하늘꿈학교 10회 졸업생 김*준 군이 최근 용인대학교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선배는 의료분야에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는 물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꿈은 구체적으로 꾸고 노력은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이날의 특강을 후배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2019 하늘꿈 감사의 밤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9.12.14 (토) 4:30 PM

장소: 하늘꿈학교 1층 강당

▷ 기도해주세요

1. 가족 없이 혼자 온 무연고 학생들이 한국에 뿌리 내리기까지 여러 고민과 유혹이 많습니다.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하늘꿈 감사의 밤을 통해 모인 모든 분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RETURN

<8, 9, 10월>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